

NEWS LETTER

2021년 12월 27일 Vol. 428

AI·데이터기반 기술사업화 심포지엄 개최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지난 12월 21일 소노캄 고양에서 ‘AI·데이터기반 기술사업화’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동국대학교의료원이 주관한 것으로 채석래 의료원장을 비롯해 김광기 기획처장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권범선 병원장, 김동억 의과학 연구소장, 카카오 헬스케어 황희 대표가 참석했으며, 내부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빠르게 변화되는 디지털시대에 대응해 동국대학교의료원 이 경쟁력을 갖추고 이에 맞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혁신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서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전담 황희 대표는 ‘병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수직적 접근방법’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병원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동국대학교의료원 김광기 기획처장은 “데이터기반의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진출과 개인 맞춤형 의료에 대한 수요가 가속화된 만큼 발전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년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 주관기관 재선정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선정하는 ‘2022년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와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 주관기관’에 최종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공동연구 등 탁월한 성과를 인정해 지난 2019년에 이어 2022년 사업 주관기관으로 재선정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개방형실험실은 2019년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59개의 창업기업 지원과 신규 고용 78명, 투자유치 190억 원, 정부과제 88억 원 수주, 특허출원 총 36건 등 다양한 성과를 도출했다. 한편,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 사업비 총 25억2000만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2021 환자안전 주간행사’ 시상식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2월 23일 4층 중강당에서 ‘2021 환자안전 주간행사’ 시상식을 개최했다.

환자안전 주간행사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감염관리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환자안전의 중요성과 환자안전관리에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도전! 세이프티히어로’라는 주제로 환자안전지킴과 관련된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베스트컷 8명을 선정해 시상했으며, 행사에 참여한 선착순 60명에게도 상품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퀴즈대회를 진행해 참여한 교직원 중 만점을 획득한 10명과 90점 이상 획득자 중 30명에게 상품을 지급했다.

권범선 병원장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교직원 분들에게 감사하다. 이번 행사를 통해 환자안전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한 병원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해달라”라고 말했다.



흉부외과 강석진 체외순환사,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제1회 전문자격인증 취득

동국대학교일산병원 흉부외과 체외순환실 강석진 체외순환사가 지난 11월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에서 주관하는 ‘제1회 체외순환사 자격인증 시험’에 합격했다.

체외순환사는 심장혈관 수술팀의 일원으로 심장, 대동맥 수술 시 꼭 필요한 인공심폐기를 작동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수준 높은 전문성과 중요한 역할임에도 전국적으로 체외순환사 인원이 적다 보니 그동안 의료인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에서는 이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기 위해 전문자격인증시험제도를 도입했으며, 제1회 자격인증시험을 통해 73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강석진 체외순환사는 앞으로 2년 후 30년 경력을 인정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자격을 인증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인증 시험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